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 4

- 201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



주요 동향

◇ 우크라이나, 4개국 정상회담에서 휴전 타결

- 러시아·우크라이나·프랑스·독일 4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교전사태 해결을 위한 휴전협정 합의
-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중단, 중화기 철수 및 비무장지대 조성, 동부지역 자치권 확대 등에 합의
- IMF는 우크라이나에 구제금융 175억 달러 지원 결정, 세계은행도 20억 달러 제공하기로 발표

◇ 유로그룹·그리스, 구제금융 재협상 합의에 실패

- (그리스) 구제금융 상환기간 연장, 추가 단기채권 발행, 그리스 국채를 통해 이득을 본 ECB의 19억 유로 반환 등을 요청
- (유로) 기존 긴축틀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구제금융 연장 등 현재 프로그램의 수준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
- 그리스가 기초재정흑자 목표치 하향시 흑자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혀, 양측이 한발씩 양보할 경우 16일 유로존 정기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타결 가능

◇ 스웨덴 중앙은행, 기준금리 -0.1%로 인하(2.12)

- '14년 10월 기준금리를 0%로 낮춘 이후 4개월 만으로, 최근 물가 하락 등 경제둔화 우려 및 3월 ECB의 전면적 양적완화(매월 약 600억 유로) 시행에 앞서 통화가치 상승 억제 등을 위한 것으로 해석
- 목표 인플레이션율(+2.0%) 달성을 위해 100억 크로나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도 발표

※ 물가상승율(전년동월대비, %): -0.4('14.9월)→ -0.1(10월)→ -0.2(11월)→ -0.3(12월)

주요 동향

◇ 미국, 안정적 고용증가세 지속

- 1월 실업률 5.7%로 5개월 연속 5%대 기록,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25.7만명 증가(전월대비)하며 1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
 - ※ 실업률(%): 5.9('14.9월) → 5.7(10월) → 5.8(11월) → 5.6(12월) → 5.7('15.1월)
 - ※ 비농업부문 고용증가인원(만명): 21('14.10월) → 32(11월) → 25(12월) → 26('15.1월)
- 임금상승률도 0.5% 상승,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 확산
 - ※ 전월대비 임금상승률(%): 0.2('14.10월) → 0.4(11월) → -0.2(12월) → 0.5('15.1월)
- 경기상승세 지속에는 이견이 없으나,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금리인상 시점에는 기관별 견해 상이
 - 2월에도 안정적인 고용증가 기조가 유지된다면, 3월 FOMC에서 '인내심' 표현이 삭제되면서 6월 첫 금리인상 예상(도이체뱅크)
 - 고용증가세는 경기상승을 반영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려할 경우, 6월 금리인상은 어려울 전망(BNP파리바, 노무라)

◇ OECD 경기선행지수, 상승세로 경기회복 기대

- 2014년 4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 지속
 - ※ OECD 회원국 : 100.3('14.9월) → 100.4(10월) → 100.4(11월) → 100.5(12월)
 - ※ 유로존 : 100.5('14.9월) → 100.5(10월) → 100.6(11월) → 100.6(12월)
- 독일, 프랑스 등 유로존 경제에 긍정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반면 영국, 러시아는 둔화, 인도는 경기회복이 가속화 될 전망
 - 선진국 : 프랑스 5개월 연속 상승, 독일 1개월 상승, 미국 5개월 연속 상승, 영국 5개월 연속 하락
 - 개도국 : 인도 5개월 연속 상승, 중국 5개월 연속 상승, 브라질 5개월 연속 상승, 러시아 5개월 연속 하락

① 외환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2. 6 | '15. 2. 13 | 전주비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₩/US\$ | 1,088.5 | 1,089.7 | 1,097.0 | 7.3 |
| ₩/100¥ | 910.12 | 929.1 | 925.9 | △3.2 |
| CNY/US\$ | 6.2020 | 6.2434 | 6.2403 | △0.0031 |
| ¥/US\$ | 119.09 | 117.29 | 118.48 | 1.19 |
| US\$/€ | 1.2174 | 1.1465 | 1.1438 | △0.0027 |

② 채권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2. 6 | '15. 2. 13 | 전주비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한국 국고채(3년) | 2.10 | 1.96 | 2.05 | 0.09 |
| 미국 국채(10년) | 2.17 | 1.96 | 2.05 | 0.09 |

③ 주식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2. 6 | '15. 2. 13 | 전주비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한국 KOSPI | 1,915.59 | 1,955.52 | 1,957.50 | 1.98 |
| 미국 DJIA | 17,823.07 | 17,824.29 | 18,019.35 | 195.06 |

④ 해운시장

| 구 분 | '14년말 | '15. 2. 6 | '15. 2. 13 | 전주비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
| BDI 지수* | 780 | 559 | 530 | △29 |
| HRCI 지수** | 538.1 | 570.4 | 571.0 | 0.6 |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(US\$/배럴)

| 유 종 | '14년말 | '15. 2. 6 | '15. 2. 13 | 전주비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WTI유 현물 | 53.27 | 51.69 | 52.78 | 1.09 |
| Brent유 현물 | 57.33 | 57.80 | 61.52 | 3.72 |
| 두바이유 현물 | 60.11 | 54.48 | 55.84 | 1.3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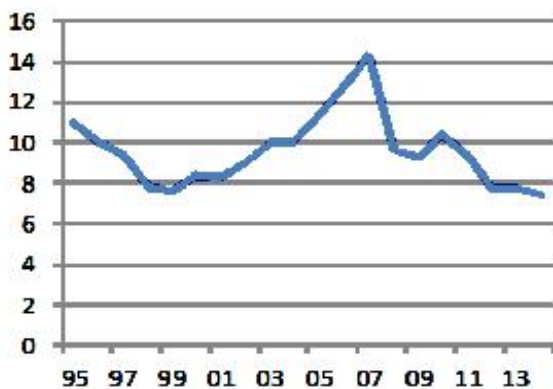
- ◆ 중국 정부의 경제·정치 운영방침이 결정되는 양회(兩會)*를 앞두고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(中央經濟工作會議)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2015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살펴보고자 함.

* 전국인민대표회의(전인대, 3.5 개시)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(정협, 3.3 개시)

1.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로 인한 성장세 둔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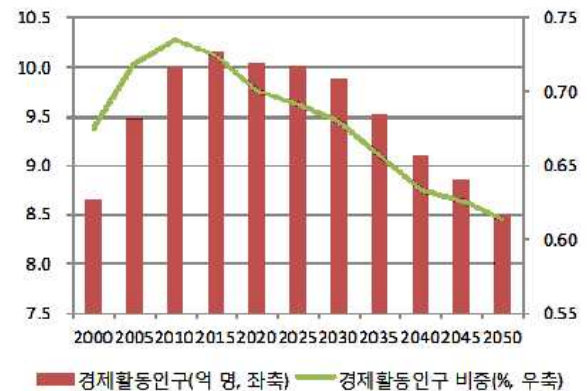
- 투자·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인구구조상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면서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
 - ① 과잉·중복투자로 인한 투자효율 감소 ② 자본집약적 산업 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 감소 ③ 에너지 다소비형 투자로 인한 환경문제 유발 등으로 기존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
 -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 초반부터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감소, 저축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
- 2014년 경제성장률이 1990년(3.8%) 이후 가장 낮은 7.4%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연간 및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8%를 하회
 - 더욱이, 지방정부 부채, 그림자금융, 부동산버블 등 리스크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성장률의 급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

<연간 경제성장률(%)>



자료: 국가통계국.

<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 및 비중>



자료: UN.

2. 정책기조의 변화: 뉴노멀 진입 공식화

□ (정책기조) '안정속의 발전(穩中求進)'을 기조로 개혁 심화, 리스크 관리 및 민생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 경제·사회 발전을 도모하면서 중국 경제의 뉴노멀(新常態, 신창타이)* 진입을 강조

* 시진핑 주석의 하남성 현지시찰(2014. 5)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수차례 언급

○ 정부 회의에서 최초로 뉴노멀 진입을 선언하고 소비, 투자, 수출, 경쟁 등 9개 부문별 뉴노멀의 특징을 제시

- 주요 특징은 시장기능 활용도 확대, 품질과 기술발전에 의한 비교우위 확보, 친환경적 성장, 고부가가치 하이테크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등

<참고자료 2 참조>

□ (정책과제) 2015년도 5대 경제정책과제로 ① 안정적 경제성장, ② 신성장동력 개발, ③ 농업발전방식 전환, ④ 경제발전구조 최적화, ⑤ 민생개선을 제시

○ 대외 리스크 요인*을 감안, '안정적 경제성장'을 정책과제로 추가하여 경제성장과 구조조정간 균형 유지 필요성을 강조

* 세계 경제의 제한적 회복,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원자재 가격 파동, 지정학적 갈등 등을 지목

- 중국 정부는 '신실크로드(一帶一路)*'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해 인프라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동시에 저물가 상황을 활용하여 통화정책 기조도 다소 완화**될 전망

* 대내 개발전략과 대외 진출전략을 통합시킨 개념. 내륙 중서부 및 국경지역 개발과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앞 진출전략을 하나로 통합한 계획 <참고자료 3 참조>

** 지급준비율 인하(50bp, 2.5)에 이어 상반기중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도 높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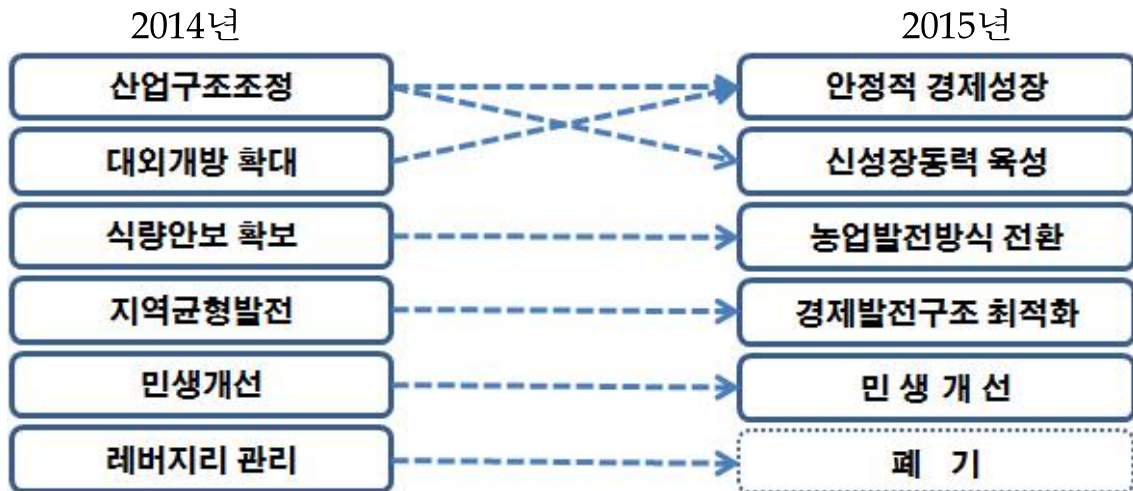
○ 신성장동력 개발 및 민생개선 과제에서 시장기능 활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시장지향적 개혁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기대

- 예금금리상한 완화, 선강통(深港通)* 등 금융산업 규제 완화,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, 농업용지 도급권(경작권) 양도 허용 등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

*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를 허용

- 한편, '레버리지 관리'를 경제정책과제에서 삭제하였는데, 이는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문제 대응을 위한 규제 도입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
 - 예산법 개정(15.1월 시행)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대신 우회적 차입을 금지하고 차입용도도 제한
 - 2014년중 그림자금융 세부부문별 감독기관 및 역할 분담 규정, 신탁 상품 규제 등을 신규 도입하여 2014년말 사회용자총액* 중 그림자 금융 비중이 2013년(29.9%) 대비 축소된 17.7% 기록
- * 실물경제에 신규 공급된 자금의 총량으로, 은행대출, 주식·채권 발행, 위탁대출, 신탁회사대출, 어음할인 등으로 구성되며, 중국인민은행은 후자의 3가지를 그림자 금융으로 간주

< 중국 경제정책과제의 변동 현황 >



- (평가) 구조변화, 성장동력 전환 등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안정적 성장을 선택
- 중국 정부는 2009년과 같이 대규모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성장률 목표치를 2014년 7.5% 내외에서 7.0%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
 - 금년 2월중 개최되고 있는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지역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4년 대비 0.5~3%p 하향 조정하는 추세

3. 시사점: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춘 대응전략 필요

-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과 통화정책 기조 완화로 인한 위안화 약세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나,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
 - 중국의 '15. 1월 수입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*,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9.9% 급감하였는데,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전년동월 대비 9.8% 감소
 - * 중국의 석탄, 철광석, 원유 수입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53.2%, 9.4%, 0.6% 감소
 -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%p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은 약 1.3%p 감소할 것으로 추정(한국무역협회)
 -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경우에도 경상 GDP 증가규모가 막대*하여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
 - * 중국의 연도별 경상 GDP 증가규모는 인도네시아, 네덜란드, 터키의 GDP 수준
<참고자료 4 참조>
 - 또한, 중국의 친환경 발전전략 채택은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
-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구조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구도를 감안하면,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보다는 경제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할 필요
 - 2013년 기준,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에서 반제품 및 부품의 비중은 72.7%에 달하는 반면, 소비재 비중은 2.4%에 불과하여, 중국의 부품자급률 상승은 우리나라의 수출감소를 야기할 전망
 - 한·중간 기술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양국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우리 수출시장을 잠식
 - 한·중간 기술격차는 2000년 4.7년에서 2004년 4.0년, 2012년 3.7년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, 2015년에는 2년 미만으로 좁혀질 전망

□ 한-중 FTA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요인 발굴 노력 필요

○ 한-중 FTA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 중국 수출 감소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상쇄할 수 있을 전망

- 한-중 FTA 발효시 대중 수출액의 44%를 차지하는 1,258개 품목에 대한 중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

<참고자료 6 참조>

○ 산업고도화, 내수시장 및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, 인프라 투자 확대,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중시 등 현지 정책·시장변화를 감안한 대응전략 마련 요구

-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
- 정책 변화를 고려한 적극적인 현지화 추진 및 현지 전문인력 양성 등 내수 및 서비스시장 진출 준비 요망

| | |
|-----|-------------|
| 확인자 | 팀 장 김 영 석 |
| 작성자 | 책임조사역 임 영 석 |

전인대, 정협,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요

- (전국인민대표회의: 전인대) 국가행정기관, 심의기관, 검찰기관을 모두 감독하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매년 3월 개최
 - (참석자) 성·자치구·직할시의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인민해방군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된 대표, 인민해방군 장성급, 소수민족 대표 등
 - (논의사항) 중국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
 - 헌법 및 기본 법률의 제정, 국가주석·국무원 총리·최고인민법원장 등의 선출·파면,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·비준, 국가경제계획 수립 등
- (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, 정협) 국정자문 및 정치협상기구로 매년 3월 개최
 - (참석자) 중국 공산당, 민주당파*, 주요단체, 정계 등의 대표
 - * 8개 공산당의 위성정당으로,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, 중국민주동맹, 중국민주건국회, 중국민주촉진회, 중국농공민주당, 중국치공당, 구삼학사, 대만민주자치동맹 등
 - (논의사항) 정책자문기관으로 정치협상 및 국정방침에 대해 논의
- (중앙경제공작회의) 비공개 최고위 경제정책결정회의로 매년 12월 개최
 - (참석자) 중앙정치국위원, 국무위원, 사법부 및 군경 지휘부 등 당정책심지도부 전원
 - (논의사항) 당해년도 경제운용 상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
 - 논의된 내용은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연간 경제정책 운용목표로 공식 발표

중국 뉴노멀의 부문별 특징

| 부문 | 특 징 |
|-------------|---|
| 소비수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방이 아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 |
| 투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프라의 상호 연결 ○ 신기술, 신제품, 신업종, 신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확대 |
| 수출과 국제수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비용우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 ○ 하이테크 업종의 외자유입과 대규모 해외진출이 동시에 발생 |
| 생산능력과 산업조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흥산업, 서비스업, 소형기업의 확대 ○ 생산의 소형화, 지능화, 전문화 |
| 생산요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력자원의 질과 기술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변모 - 인구 노령화, 농업인구 감소,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에 직면 |
| 시장경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품질 중심의 차별화에 의한 경쟁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 |
| 자원환경 제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환경, 저탄소 순환발전 방식으로 변모 - 환경소모형 발전방식이 한계에 도달 |
| 자원배분 및 거시조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산과잉의 전면적 해소 ○ 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미래 산업발전 방향 모색 |
| 경제위험 누적과 해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 위험요인은 총체적으로 제어 가능 - 레버리지와 버블로 인한 각종 위험은 당분간 지속 |

자료: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정리.

중국의 新실크로드 정책 개요



□ (주요내용) 新실크로드(一帶一路, One Belt One Road) 전략은 육상 교통로(실크로드 경제지대, 一帶)와 해상교통로(21세기 해상실크로드, 一路)를 결합한 거대경제권 개발 계획

* 일대(一帶)는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, 일로(一路)는 중국 남부지역 개발과 동남아 진출의 연계로 해석

- 2014년말 현재 실크로드 조성기금 조달(400억달러), 해상 실크로드 은행 설립(50억 위안),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(카자흐스탄 140억 달러) 등을 추진
- (대내적 영향) 도로,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해 과잉생산(철강·시멘트)의 해소, 신성장동력 확보, 중앙아시아지역 자원 확보, 서북부·서남부 지역 경제발전이 예상
- (대외적 영향) 교역비용 절감, 경제통합 가속화, 대외 영향력 확대 등

□ (향후전망) 중국의 강력한 정책의지, 주변국과의 긴밀한 경제교류 등을 감안할 때 新실크로드 개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

- 다만, 미국의 견제 및 지정학적 갈등, 사회간접자본 수익성 악화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

<참고자료 4>

연도별 경상 GDP 추이

(단위: 억 달러)

| 구 분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중국(변동분) | 8,862 | 9,298 | 9,500 | 10,282 | 10,897 | 11,659 |
| - 경제성장률 | 7.4 | 7.1 | 6.8 | 6.6 | 6.4 | 6.3 |
| 네덜란드 | 8,804 | 8,915 | 9,181 | 9,512 | 9,864 | 10,249 |
| 인도네시아 | 8,561 | 9,150 | 9,753 | 10,511 | 11,371 | 12,309 |
| 터 키 | 8,133 | 8,611 | 9,109 | 9,655 | 10,220 | 10,817 |

자료: IMF, WEO('14.10)

<참고자료 5>

주요 지표별 국가 순위

| 경제규모 | | | 국민소득 | | | 인구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순위 | 국가 | GDP (억 달러) | 순위 | 국가 | 1인당 GDP (달러) | 순위 | 국가 | 인구 (만 명) |
| 1 | 미국 | 174,162 | 1 | 룩셈부르크 | 116,752 | 1 | 중국 | 136,752 |
| 2 | 중국 | 103,553 | 2 | 노르웨이 | 99,294 | 2 | 인도 | 125,970 |
| 3 | 일본 | 47,698 | 3 | 카타르 | 94,743 | 3 | 미국 | 31,852 |
| 4 | 독일 | 38,204 | 4 | 스위스 | 84,343 | 4 | 인도네시아 | 25,149 |
| 5 | 프랑스 | 29,023 | 5 | 호주 | 62,821 | 5 | 브라질 | 20,277 |
| 6 | 영국 | 28,476 | 6 | 덴마크 | 61,884 | 6 | 파키스탄 | 18,629 |
| 7 | 브라질 | 22,441 | 7 | 스웨덴 | 57,556 | 7 | 나이지리아 | 17,394 |
| 8 | 이탈리아 | 21,292 | 8 | 싱가포르 | 56,112 | 8 | 방글라데시 | 15,822 |
| 9 | 러시아 | 20,573 | 9 | 미국 | 54,678 | 9 | 러시아 | 14,370 |
| 10 | 인도 | 20,478 | 10 | 네덜란드 | 52,248 | 10 | 일본 | 12,706 |
| 11 | 캐나다 | 17,938 | 11 | 오스트리아 | 51,183 | 11 | 멕시코 | 11,958 |
| 12 | 호주 | 14,825 | 29 | 대한민국 | 28,738 | 12 | 필리핀 | 9,943 |
| 13 | 대한민국 | 14,494 | 80 | 중국 | 7,572 | 25 | 대한민국 | 5,044 |

주: 2014년 추정치.

자료: IMF, WEO('14.10)

한중 FTA 상품양허안

| 구 분 | | 한 국 | 중 국 |
|-----------|----------|--|---|
| 일반 품목 | 즉시 철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,823개 품목, 414.9억 달러 - 원유, 나프타, 음향기기, 반도체제조장비, 의약품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,258개 품목, 733.4억 달러 - 항공등유, L형강, 스테인리스열연강판(3mm 미만) 등 |
| | 5년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,113개 품목, 30.3억 달러 - 제트유, 플라스틱제품, 금속 절삭기계, 의료기기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,589개 품목, 58.2억 달러 - 항공기부품, 유선통신기기 부품, 반도체제조장비 등 |
| | 10년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,900개 품목, 165.7억 달러 - 차체부분품, 냉장고, 세탁기, 화장품, LCD 패널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,849개 품목, 311.6억 달러 - 에틸렌, 프로필렌, 충격흡수 장치, 냉연강판(0.5~1mm), 냉장고, 에어컨, 여성코트 및 자켓, 유아복, LCD 패널 등 |
| 민감 품목 | 15년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79개 품목, 76.9억 달러 - 휘발유, 기억박스, 타이어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40개 품목, 218.4억 달러 - 나프타, 아스팔트, 윤활기유, 프레스금형기계, TV카메라 부품 등 |
| | 20년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2개 품목, 26.8억 달러 - 축전기, 편직제 의류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69개 품목, 92.2억 달러 - ABS수지, 도료, 브레이크, 차량용축전기, 콘택트렌즈 등 |
| 초민감 품목 | 부분 감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7개 품목, 17.6억 달러 - 안전유리, 알루미늄박, 면직물, 신발부분품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28개 품목, 99.9억 달러 - 리튬이온축전기, 자동기어변속 장치, 차체부분품, 선박용엔진, 음향기기부품, 스킨케어화장품 등 |
| | 양허 제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10개 품목, 28억 달러 - 초산에틸, 판유리, 자동차, 면사, 모사, 베어링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09개 품목, 147.3억 달러 - 파라자일렌, 에틸렌글리콜, 자동차, 기어박스, 핸들, 클러치, 레이저프린터 등 |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